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30강, 고린도전서 12-14장, 영적 은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고린도전서 13-14 장

© 2024 Gary Meador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30강, 고린도전서 12-14, 영적 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3-14.

글쎄요, 우리는 다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
장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3장과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오늘 이후의 강의는 은사에 대한 질문, 은사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신학적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에서 문제가 될
경우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193페이지, 이것은
노트 팩 번호 14입니다.

우리는 맨 아래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적 은사와 사랑의 법칙: 13장과
14장 모두에서 사랑의 법칙을 모니터링으로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정 시나리오에서 고전적인 고린도전서 13장은 13장과 14
장에 걸쳐 나타나는 은사에 대한 처리의 중간을 제공합니다.

이 세 장은 함께 흐르고 함께 주제화되어야 합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13이 지역 사회의 분열 문제, 덜한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 불화의 문제, 그리고 통일과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고전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 꺼내져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구글로 검색하면, 아마도 수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수천 개의 히트를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문화와 시간에 맞는 사랑에 대한 고전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제작된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이 글을 읽으며 그들의 성실성, 기독교 윤리, 그리고 공적 예배와 은사의 행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접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공동체와 관련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가치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규정했는데, 그 공동체는 개인의 화려한 표현, 심지어 지위를 추구하는 행위보다 소통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관계적 본질을 만들고 신체의 윤리를 시야에 가져옵니다. 사랑은 윤리의 여왕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의 잠깐 벗어나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시간 제한을 꽤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단지 사람 문제를 제기할 기회일 뿐입니다.

관계 윤리를 판단하기에 성경적 사랑 원칙보다 더 나은 주제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거의 모든 종교적 경계를 넘는 국제적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장을 그 자체로 큰 소리로 읽고, 귀에 들리면서 음조가 스며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종류의 장입니다.

이제 1~3절에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은사와 사랑의 대조는 사랑을 기독교 진리에서 갈라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울리는 심벌즈가 됩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달을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바울이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요점이 아니고 그게 필요도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과 그들의 재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만이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의 목적은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윤리의 원칙과 통일의 원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예언과 진실, 그리고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과 사랑의 개념을 갈라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맥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필요는 주로 사회적이며, 사랑은 사회적 공동체를 관리합니다. 구약성서는 사랑을 언약적 충성으로 제시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제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인도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목적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목적은 당신이 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나 사랑의 개념을 쇠지렛대로 사용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원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미 내려진 결정을 관리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진실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랑을 그 자리에 두어야 하며, 마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신인

것처럼 외삽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좋은 고전적 윤리, 사람들 사이의 정직성에 대한 좋은 고전적 특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글을 읽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구성에 대한 더 넓은 성경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친구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행동의 동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의 관리입니다. 사랑을 정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생각해 봅시다. 195페이지에 차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기술적 진술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구절들을 포착한 진술입니다. 신명기가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포착합니다. 사랑은 신의 교훈적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신성한 계시에 대한 마음, 의지, 가치의 인지적 조정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각 방식을 조정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아마도 신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사랑, 충실함 등은 우리가 언약 용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반드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는 언약의 사랑, 언약의 충성심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따라서 그의 피조물들이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구원을 통해 그와 재회할 수 있는 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해하기 힘든 용어예요. 그리고 발렌타인 데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모두가 서로에 대해, 서로를 향해 기분 좋게 느낄 때처럼, 사랑에 대한 문화적 감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결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 우리의 세계관 , 그리고 우리의 가치 체계 전체를 특별한 계시에 대한 인지적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견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사랑의 결과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대상의 사랑을 향한 활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향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능한 가장 큰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을 정의하나요? 성경적 계시를 통해 정의합니다. 대상의 사랑을 향해 가능한 가장 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성경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성경에 근거하여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만, 친절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슬림에게 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에게 친절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두 가지 다른 말하는 방식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랑이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은 하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종. 또한 공동체 내에서 가르침의 내용을 관리합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의 사랑의 인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멈출 것입니다.

방언이 있는 곳에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곳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은 이 범주를 두 갈래로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나아가면서 범주와 관련하여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이 역사의 진행에서 역할을 하는 동안 계속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고,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는 선물에 대한 토론에 대한 우리의 여담에서 이 텍스트의 세부 사항 중 일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논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섹션이 중단 문제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는 치료 후의 여담에서 다룰 것입니다. 13:13의 결론적인 진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색해 보입니다. 바울이 믿음과 사랑을 갑자기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유명한 삼부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당신을 위한 구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구글로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보세요.

제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믿음, 소망,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에 대한 엔키리디온을 썼어요. 아니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건 바울의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특정한 것에 많은 정보를 쏟아 부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구절에 대한 완전한 세미나를 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선교 설교에 매우, 매우 프로그램적인 여러 텍스트에서 반복되는 삼부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바울 서신의 구성에 대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들에게 다시 써서 줄 때 물건을 걸어두는 옷걸이 같은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 희망, 사랑과 같은 용어를 통해 그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제 웹사이트로 가서 그 특정 삼위일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에 그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Garland는 195쪽 하단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예언, 지식, 방언의 삼위일체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사랑에 믿음과 소망을 더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의 문학적 성격은 너무나 균형 잡혀 있어서 그는 이미 언급한 예언, 지식, 방언과 같은 익숙한 삼부작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문학적으로 그는 그 목적을 위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단어를 찾아보면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배적인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신앙은 신학입니다. 사랑은 윤리입니다. 희망은 동기이자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믿음과 사랑에 통합됩니다. 믿음과 사랑을 취하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바울의 서신을 생각해 보면, 항상 신학과 실천, 신학과 실천입니다. 믿음은 신학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것은 윤리, 신학, 실천입니다.

희망이 통합되고, 종말론적 이슈가 미래에 대한 동기로 이 두 가지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 때문에 지금 살아야 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큰 주제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14장에서 사랑 개념의 실제적 적용. 그리고 13장은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남겨두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릴 수 있어요.

읽을 수는 있지만, 이 장을 소리 내어 읽어서 들을 수 있도록 작은 과제로 삼아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성경 녹음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를 들으면서, 그것을 당신의 기독교적 삶과 세계관과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용어의 대부분은 관계의 구성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 친절은 나, 나 자신, 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친절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에 대해 말하는 구성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12에서 14까지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긍정적인 가르침을 몇 가지 제공합니다. 이제, 14. 바울은 14장을 사랑의 길을 추구하라는 권고로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직 사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13살이 말했고, 14살이 실천했습니다.

14장에 나와 있는 공개 예배에서 은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따르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무책임한 방식으로 은사를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미 로마 고린도의 이 회중에서 본 엘리트, 지위,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는 문제라는 주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신체에 대한 철학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 즉, 그들의 무책임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 공동체로서의 신체에 대한 철학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

물을 깜빡했는데, 당신한테서 물을 가져오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가장 남용된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지위는 아마도 모든 계층의 집회에 들어왔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방언이 지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실제로 연속체의 잘못된 끝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오래된 영적 노래에 "오직 위로 가는 길은 아래로 가는 길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직 위로 가는 길은 아래로 가는 길뿐이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올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겸손에 대해, 그저 당신의 일을 한다면, 당신의 은사가 문에서 알려질 것이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알려지고,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들어간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두드러진 위치에 자신을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폴이 그들을 비판하는 방식에서 약간 부드럽습니다.

그는 한 면에서는 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한 면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짐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면 그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방언이 지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잘못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4장에서 바울이 기본적으로 지적한 바는 사랑은 외적인 과시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공동체의 교화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소통은 지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좋은 지위를 얻고 싶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는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설교자가 교회 예배 후 이 문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 구절을 수년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리고 지금 제게는 너무나 이해가 가요. 칭찬이에요.

당신이 문에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목사님, 정말 좋은 설교였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설교였어요.

그럼 그냥 울어야지. 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 폴의 주장의 전개는 내 전임 교수였던 보이어가 제시한 것이다.

다음은 조직적 목적을 위해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바울은 14:1-19에서 방언의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의 문제는 분명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이해 가능한 의사소통이나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십시오.

떠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을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나쁩니다. 바울은 방언의 가치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조적으로 가치가 관찰됩니다. 예언은 더 바람직합니다(1절과 5절).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3절과 4절). 방언은 이기적입니다(4절). 방언은 종속적입니다(5절b). 5절의 덕을 세우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것은 3, 4, 6, 12, 19절에 나옵니다. 그냥 본문을 읽고 본문이 말하는 바에 따라 살아가세요. 이 본문에는 실제로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중이 잘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거의 보편적이고 규범적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회중으로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십시오.

사랑이 주도하도록 하세요. 사랑은 여러분이 통일과 다양성을 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에게 선의의 기독교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정의 문헌에서 그의 관찰을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알아했습니다.

첫째, 예언의 정의는 적용되는 해석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티슬턴은 큰 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범주 각각에 대해 긴 섹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이미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두더지에 그것을 부어서 재료를 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방법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짐을 가지고 와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예언은 교육적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웁니다.

예언은 구약을 발전하는 신약에 적용합니다. 이는 예언이 어떻게 기능하고 이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된 견해입니다. ERL 엘리스는 훌륭한 학자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료를 찾는다면, 그가 성경의 재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사람들이 예수가 실제로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예언은 자발적이고 계시적이며 영감을 받은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 사도들에게는 2차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소통하신 개인들이며, 그들은 그 생각들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선지자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예언은 믿는 공동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체 배경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혼합된 청중의 문명적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교회에서는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합니다.

예언은 신약에서 교회 안에서 작용합니다. 예언은 구약에서 더 큰 배경에서 작용했지만, 그 중 일부는 이스라엘과 같은 시민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시민 조직에 속한 집단으로서의 교회와 대조된다. 이 맥락에서 14.2절과 3절은 방언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2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사실, 아무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언어로서의 방언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봅니다. 나중에, 14장에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킹 제임스 버전은 알려지지 않은 언어라는 단어를 추가하곤 했습니다. 그 항목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 아무도 이를 알아듣지 못하나니, 이는 영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신비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백성에게 말하니, 이는 그들이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때문이라.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정당하게 자기를 세우느니라.

그러나 방언으로 말하는 자,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같은 것으로, 같은 주제로 돌아갔네.

교회에서 지적인 소통과 효과적인 소통이 두드러져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합니다. 언어의 초자연적 사용으로서의 방언과 관련된 구절들. 그들은 사도행전에 있고 아마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몇몇 구절들일 것입니다.

특히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그 자체의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언급되거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 혀를 의미하는 단어인 *glossa*를 사용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구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통역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 집회에서는 그것이 요구되거나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독특한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방언의 정확한 본질은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교도 사원에 있는 이교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대 그리스 세계의 신탁에 대해서. 말로 표현된 언어도.

파이썬 영혼을 가진 어린 소녀처럼. 그들은 아마도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주인은 그것을 해석했다.

그들이 어떤 설정을 했든. 그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나쁜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의 종교들은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사물에 접근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그것이 이월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들은 얼마나 그 이월을 강요했을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저는 수십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해설에서.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동시에. 특히 이런 종류의 혐의 압력에 관해서.

오직 고린도에서만. 그래서 정확한 본질은 매우 논쟁적입니다. 외국어로는 분명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학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선을 따라, 이 중 일부는 14장에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그들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합니다. 그럼 왜? 농담이에요.

방언은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일 것입니다. 방언은 전례적이고 고풍스럽고 리듬감 있는 구절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기적이 필요했어요. 혀를 말하는 사람을 통역하는 재능이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전례적 작품을 사용할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수입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교도 사원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을 때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빌려온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황홀한 말로서의 혀. 아마도 지배적인 견해일 것이다. 혀는 무의식의 언어다.

대부분의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은 예언할 때 무의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할 때도요. 그리스 배경의 신탁이 그랬습니다.

일종의 예언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 방언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의식이 있을 때는 황홀한 말이 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이 젊은 여인이 말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정확한 본질은 매우 논쟁적입니다.

그냥 문헌을 읽어보세요. 여기서의 그 모든 것을 풀어내지 않을 겁니다. 혀에 대한 유일한 공통 분모.

고린도전서 일부 본문에서. 그것은 신에게 한 말이었는가? 14장 초반에 인간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방언을 통역하는 평행한 은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예배하는 회중에게 그것을 해석하는 회중에게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했다면, 만약 당신이 황홀한 연설로 말했다면, 회중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어요. 폴은 그것에 대해 매우 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독특한 문제였어요

고린도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14:5 주동사는 소원이나 욕망으로 번역되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가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나는 많은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둘 다 또는 둘 다보다는 둘 다 또는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헌신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곳입니다.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폴의 “내가 너였으면 좋겠다”는 진술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양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동일시하려는 화해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헨리 채드윅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채롭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경을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초점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음물 을 뿌렸습니다 . 그가 혀의 가치와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폴은 여러분이 모두 말하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더 원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꽤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서사의 단순한 독해에서. 이 상대적 가치가 관찰됩니다.

이해의 필요성에 의해. 그것이 다시 인도하는 힘입니다. 6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계시나 지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언이나 교훈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이해 가능성의 근거. 7~17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파이프나 하프와 같이 소리를 내는 생명 없는 것의 경우에도, 음표에 구별이 없다면 누가 어떤 곡조가 연주되는지 알 수 있겠는가. 흥미로운 진술이다.

어떤 음악을 들으세요? 무엇을 좋아하세요? 클래식 음악 팬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거의 모든 형태의 음악을 좋아해요. 거의 다 좋아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음악을 좋아하고, 저는 클래식 음악의 열성적인 팬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그게 누구인지 말해주는 의미에서요. 그리고 무엇인지요. 어떤 악장인지 등등. 저는 베토벤과 다른 작곡가를 구별할 수조차 없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들을 때, 저는 같은 것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하자면 다른 레코드에서 나온 거예요. 혼한 일이 아니예요. 왜? 제가 그걸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통하지 않아요. 저는 밴조를 연주해요.

제가 처음 가진 밴조 음반은 약 12곡이 담긴 연주 밴조 앨범이었습니다.

그 레코드를 들었을 때,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한다. 화가 났다. 나는 결함이 있는 레코드를 팔았다고 생각했다. 그 레코드의 모든 노래가 정확히 똑같은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제 전직 동료 중에는 밴조가 항상 똑같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주해보니. 그리고 노래도 알게 됐어요. 각 곡의 엄청난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 각 곡의 엄청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폴은 음악 감상력이 있다면 매우, 매우 보편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죠.

혀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일 뿐이에요. 바울에 따르면,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방언의 문제가 신약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왜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을까요? 목회서신에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들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방대한 책들 중 일부이며, 이 책들은 교회 질서의 속도를 정했습니다. 게다가 사도 교부들의 글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Accordance에서 이것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도 시대의 가장 초기 증인입니다.

이제 나는 다른 곳 어딘가에 이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매우 희소합니다.

이것은 코린토스의 로마 식민지와 관련된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린토스 기독교인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별로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마침내 답을 찾았을 때요. 모두가 그것에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해석적 잉크 흘림을 많이 해결할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는 이해 가능성의 필요성에 의해 관찰됩니다. 이해 가능성의 근거는 7~17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악, 언어, 9절과 12절의 결론.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누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허공에 대고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를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로 10,000개 이상의 단어를 가르치는 것. 물론, 우리는 그 특정한 감정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우선권은 사다리의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수고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서사가 그것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방언의 목적이 예언적 표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1420년 장의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바울은 방언이 하는 일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공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입문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연상적인 연설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형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질책하는 것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그는 12장에서 14장까지 훨씬 더 호감적이지만 교훈적입니다. 고린도인들의 미성숙함에 대한 바울의 질책을 완화합니다. 흥미롭게도, 영적 미성숙이라는 주제가 현재 장의 마지막에 다시 등장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무지하게 두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관심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합니다. 카슨은 적어도 일부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교화되어야 한다는 사랑의 요구와 같은 다른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영적 경험의 강도로 성숙도를 측정하기를 원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의도적으로든 의도하지 않게든 악에 있어서 성숙하거나 진보했고, 사고에 있어서 미성숙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보다 해를 끼쳤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고자 하며 우리를 그쪽으로 이끅니다. 바울의 방언 개발은 표적이지만,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글썄요, 어떻게 그럴까요? 글썄요, 이사야 28:11입니다. 아마 제가 당신에게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28:11입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NIV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에브라임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집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8:11절, 실례합니다. 왜냐하면, 10절,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에 대한 규칙, 저것에 대한 규칙,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럼 좋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좋아요. 이사야의 요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바빌로니아 포로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신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홍콩 한가운데서 걸어나올 때처럼, 그들이 걸어나올 때, 그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것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고, 이제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상하고 이질적인 입술이 결국 여러분의 주의를 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와서 그것을 비유로 삼아, 제 생각에는, 이 특정 상황에 대해 말하고, 방언이 표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28:11의 맥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들 자신의 언어로 전해진 28:10, 즉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28:11에 나오는 아시리아 침략자들의 외국어, 제가 바빌로니아어라고 말한 바빌로니아어에서 교훈을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방언의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예에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설정에서, 21절 이하에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인용하여 그는 방언의 존재가 사람들, 특히 우연히 회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공개 예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해력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불신의 표시가 됩니다. 이제, 그것은 적절한 탐구가 아닙니다.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사야 28장의 이 사용과 그것이 여기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탐구에는 아마도 30분에서 45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오, 이건 기적적인 일이구나 하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신탁이 방언으로 말했을 때처럼,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로 와서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들에게 광범위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신호이며,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들을 기독교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예에서 혀는 외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까? 같은 의미에서 아시리아 방언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표적이었습니다.

사실, 방언은 불신자들이 방언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볼 때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그것은 황홀한 말을 암시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자들에게 표적으로서의 예언에 대한 언급인 14:22와 대조해 보세요. 22절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방언이 그 목적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의사소통을 합니다.

조금 서두르고 있지만 어쨌든. 199페이지. 바울은 집회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초기 교회 예배는 여러 가지로 특징지어졌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 각자는 찬송가나 교훈의 말씀이나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시 연결되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모든 것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시 말해서, 목표는 교화입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두 사람 또는 많아야 세 사람이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통역해야

합니다. 통역자가 없다면, 말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조용히 있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그 연설자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몰랐던 듯합니다. 그것은 그들과 신 사이의 헌신적인 언어였고, 기적은 어떤 통역자가 그들이 말한 것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듣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적절하게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풀 수 있을 만큼의 평행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심지어 풀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세 명의 선지자가 말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말한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그것은 순진한 수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오면, 먼저 말하는 사람은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차례로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교훈을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것은 황홀한 말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백성의 모든 회중과 같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에서 얻고 있는 설명은, 신약이나 사도 교부들의 교회가 어떻게 만나고 예배했는지에 대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을 하는 매우 규범적인 방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설정으로 확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저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취하는 데 고집한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고 물어보아야 하는 매우 궁금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앞서 언급했던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 나옵니다. 그는 13절의 끝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2011 NIV는 대시를 넣었는데, 이는 주님의 백성의 모든 회중에서처럼 다른 것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34절을 33b로 시작하거나 끝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34. 여성은 교회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묻고자 한다면, 그들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 쿵 하고 떨어져 내립니다.

글쎄요,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견해 측면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의 주석에서 반복해서 이 구절의 개요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표면적인 가치라고 말하고, 따라서 여성이 말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문제를 무시합니다. 그 장에서 여성들은 말할 수 있고, 심지어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과 여기 사이에 모순이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액면가치가 매우 순진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4장, 예언의 맥락은 권위 있는 가르침과 같지 않다. 이 진술은 여성에게 전달되는데, 예언이기 때문에 남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권위 있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삽입으로 봅니다. 사실, Payne과 Fee는 Payne에 이어 Payne이 바티칸 사본 의 주요 사본에 대한 주요 연구를 수행했는데 , 특히 이 장의 여백 주석은 34절과 35절이 나중에 이 장에 삽입되었음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변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래 텍스트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것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Fee와 다른 사람들이 이 텍스트의 불일치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당한 접근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당장에, 글썄요, 그건 그냥 성경을 자유주의자가 깎아내리는 거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여기에는 타당성이 있고, Fee and Payne의 문헌을 읽어볼 수 있어요.

다음은 페미니스트 폴린 가부장주의입니다. 피오렌자는 가톨릭 자유주의자이고, 그녀는 폴이 여성을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진술은 가족 규범과 관련이 있고 대중 집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엘리스는 이 맥락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보려고 노력하는데, 대부분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얼 엘리스는 훌륭한 신약학자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이 특정 구절에서 그 노선을 취했다. 많은 사람이나 아무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가장 큰 견해는 그것이 슬로건이라는 것입니다. Kaiser는 이것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Talbot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듯하고, 다른 작가들은 그것을 슬로건으로 제기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압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5장과 36장을 읽어보셨겠지만, 34장과 35장을 보세요. 36장을 보세요. 아니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당신에게서 나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만 전해졌나요? 매우 냉소적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가요? 슬로건 관점은 바울이, 여기에 있는 내용만큼은 아니지만,

여성에게 말할 기회를 거부하는 회중의 특정 집단을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미 11장에서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와서 이 그룹을 떠올렸을 때, 그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슬로건으로는 꽤 긴 진술입니다. 하지만 그 관점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듯합니다.

하나는, 11과 14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왜 그는 이 특정 시점에서 여성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답은 그가 여성을 입 다물게 하려는 집단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예언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냉소적입니다.

그는 긴 답변을 하지 않고 비꼬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전해진 사람이 당신뿐입니까?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진술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바울이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인정하십시오. 매우 무거운 권위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누구든지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들 스스로도 무시당할 것입니다. 오래된 번역은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어느 쪽이든, 38절의 번역에서, 요점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가르침은 신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풀어내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슬로건 뷰가 그것에 대한 매력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돈을 위해, 저는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에 대한 참고문헌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 37절과 38절은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은 물려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를 2장 6절에서 16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폴, 당신은 어디서 정보를 얻었습니까? 저는 신에게서 얻었습니다 .

그리고 당신은 잘 들어야 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세 번째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공유할 신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꽤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꽤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39절. 여기서 화해적인 성격을 주목하십시오.

양보하는 방식으로 화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배에 태워두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당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대중 예배를 통제하여 원래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와우. 우리는 아직, 저를 믿으세요, 우리는 12에서 14까지의 표면도 긁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질문을 던지고 당신을 멍하니 놓아두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호기심에 스스로 이 텍스트들을 조사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년 전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우리는 모여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교사란 무엇인가? 하루 반 동안 그룹으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좋은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답은 호기심 많은 학습자가 좋은 교사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잃었다면, 공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배우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이 사역을 하지 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알리고 전달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역 리더라면 당신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고 강렬하게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열정이 아니라면, 왜 당신은 사역을 할까요? 아시다시피, 당신은 사역을 하지 않고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열정이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약해지면, 좋은 소통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약해지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걸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어디서 잃었을까요? 되살리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열정이 아니라면 물려서세요. 누군가 당신의 자리를 채우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도울 열정을 찾으세요.

소통하기. 소통한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야 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공적 예배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공적 예배는 서로 모여서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중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배우고 발전시키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발전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예배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당신이 행복한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당신이 당신의 영혼의 깊이까지 훈련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글쎄요, 다음 강의로 돌아와서 은사에 대한 논란, 특히 오늘날 회중의 은사의 기적적 수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세기와 같은가요? 바울이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혀는 괜찮다고 했어, 해. 하지만 나는 네가 다른 걸 하는 게 낫겠어. 그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그것을 폄하한 적이 없어.

질문은, 오늘은 어떨까요? 치유의 은사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 문화에 신앙 치유자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논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통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계속해서 질문을 조사하고, 여러분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30강, 고린도전서 12-14, 영적 은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3-14.